

## 소수장애인은 누구인가?

### 목차

- I. 소수장애인의 주요특성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 III. 정책 제언

### 소수장애인의 주요특성

- ▶ 소수장애인이란 장애인구 중 1% 미만인 장애유형으로 정책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의미
- ▶ 주로 내부장애인으로 질병에 의한 손상과 장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장애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 ▶ (일반적 현황) 남성이 많고 평균연령(소수 56.9세, 비소수 61.4세)과 장애등록시 연령(소수 48.9세, 비소수 51.7세)은 낮음
- ▶ (일상생활) 비소수장애에 비해 일상생활 지원필요 정도(소수 23.8%, 비소수 28.4%)는 낮고 신체활동 활동제약은 덜하지만 차별경험 높음(소수 29.9%, 비소수 26.2%)
- ▶ (건강관련 특성) 비소수장애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지만(나쁨 기준, 소수 56.8%, 비소수 48.3%) 의료적 접근성은 높음. 특히 만성질환이 많고 정신건강 상태(스트레스 기준, 소수 95%, 비소수 88.3%. 자살생각 기준, 소수 18.5%, 비소수 12.4%)가 나빠 지원서비스 필요. 또한 삶의 만족도(불만족 기준, 소수 53.1%, 비소수 45.4%) 낮고 보건의료건강서비스 이용률 높음
- ▶ (경제적 특성) 비소수장애에 비해 생계급여 수급률은 높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높음(지출비율 기준, 소수 88.9%, 비소수 85.3%).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소수 194천 원, 비소수 128천 원)이 많고 의료비의 비중 상당히 높음(소수 117천 원, 비소수 47천 원)
- ▶ (욕구) 비소수장애에 비해 향후 장애인체육시설 이용과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정책 제언

- ▶ 장애유발 질병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개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동료상담·전문상담 강화, 장애인식 교육에서의 소수장애에 대한 콘텐츠 강화,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I. 소수장애인의 주요특성

소수장애인은 누구인가?

소수장애인은 장애인구 중 1% 미만인 장애유형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장애인

소수장애인이란, 장애인구 중 1% 미만으로 장애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sup>1)</sup> 설계나 구축시 소외된 유형에 속하는 장애인을 의미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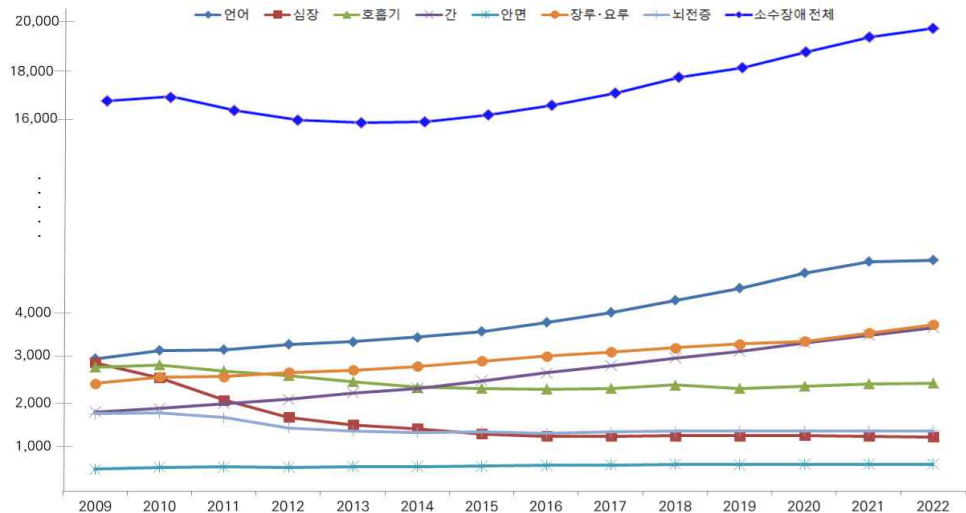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학문적 기준은 없으나 등록장애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인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sup>3)</sup>

-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 등록장애인 중 1%미만인 장애유형은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주로 신체 내부기관 장애로 나타남

▶ 전체 소수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심장장애는 소폭 감소, 안면장애는 유지, 그 외 소수장애(언어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는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소수장애인 추이(2009~2022)



자료: 통계청 각연도 자료

## 외부 신체기능장애와 구별되는 내부장애 소수장애인의 특성<sup>4)</sup>

▶ 첫째, “질환의 장애화에 따라 외부 신체장애와 달리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발생시점 및 장애로의 이행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장애의 중증도가 변화할 뿐 아니라 질병에 의한 손상과 장애 및 분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둘째, “장애의 중증화로 내부장애인은 질환이 장애로 이행함과 더불어 장애의 중증도가 변화하는데 장기를 이식을 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에 비해 중증의 비중과 입원경험 및 입원횟수가 월등히 높아 의료비가 많이 듭”

1) 현재 경기도 차원에 소수장애인 중 장루요루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장루요루장애인 지원 조례(2019)」시행에 따라 인공장루와 요루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누림센터에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기타 소수장애인을 위한 별도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2) 양희택(2014). 소수장애인 현황과 임파워먼트 방안

3) 오욱찬(2018). 소수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4) 서진숙, 김관용(2012).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

## I. 소수장애인의 주요특성

- ▶ 셋째, “연령의 고령화로 대부분의 내부장애인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에 비해 고령의 나이에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며 장애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됨”
- ▶ 넷째,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에 따라 경제활동의 제약이 많음”
  - 일반적으로 “내부장애인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거나 내부기관 장애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운동능력 저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짐”
  - 그러므로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근로는 제한이 있음. 또한 사람이 많은 곳은 감염 가능성이 크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며, 급격한 온도변화에 주의해야 함. 내부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시설과 독립적인 공간의 구비는 필수임”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남성이 많고  
평균연령과 장애등록시  
연령은 낮음

### 경기도 장애인 563,986명 분석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sup>5)</sup> 원자료(가중치 적용) 중 경기도 장애인 563,986명 분석
  -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장애등록 연령, 1인가구), 일상생활 관련 특성(일상생활지원 필요 여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유무, 다른 사람의 지원 충분정도, 삶의 만족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 경험), 건강관련 특성(주관적 건강상태, 미충족의료 여부, 신체적 만성질환 유무, 정신건강, 보건의료건강서비스 이용여부, 건강에 대한 정보습득처), 경제적 특성(생계급여수급 여부, 월평균수입, 월평균지출액,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및 추가항목) 등을 분석함
  - 소수장애와 비소수장애<sup>6)</sup>를 비교하여 분석 기술함

### 소수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 ▶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고 비소수장애보다 소수장애의 남성 비율은 높으나 평균연령과 장애등록시 연령은 낮음
  - 소수장애 남성 68.5%, 비소수장애 남성 58.5%로 소수장애가 10%p 높음. 특히, 장루·요루장애 86.5%, 호흡기장애 77.2%, 간장애 6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연령은 소수장애 56.9세, 비소수장애 61.4세로 비소수장애의 연령이 높음. 그러나 호흡기장애(70.3세)와 장루·요루장애(71.4세)는 비소수장애보다 높음
  - 장애등록 연령은 소수장애 48.9세, 비소수장애 51.7세로 비소수장애의 장애등록시 연령이 높음. 그러나 호흡기장애(63.2세)와 장루·요루장애(62.1세)는 비소수장애보다 높음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6)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 정신, 신장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일상생활지원 필요  
정도가 낮고 일상적 신체  
활동 제약은 덜하지만  
차별경험은 높음

- 1인가구의 비율은 소수장애 18.4%, 비소수장애 27.3%로 비소수장애가 높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 23.6%, 언어장애 21.8%, 장루·요루장애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구분	소수장애							비소수장애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성별 (%)	남	59.9	52.9	77.2	69.6	53.9	86.5	61.0	58.5	58.5
	녀	40.1	47.1	22.8	30.4	46.1	13.5	39.0	41.5	41.2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구 유형 (%)	1인	21.8	9.5	23.6	14.8	17.7	16.8	12.2	27.3	27.0
	다인	78.2	90.5	76.4	85.2	82.3	83.2	87.8	72.7	73.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연령 (세)	48.0	48.0	70.3	53.0	60.7	71.4	46.9	61.4	61.3	
	m=56.9									
장애등록 평균연령(세)	40.9	38.4	63.2	46.1	52.7	62.1	37.5	51.7	51.6	
	m=48.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소수장애인의 일상생활 관련 특성

- ▶ 소수장애는 비소수장애에 비해 일상생활의 지원 필요 정도가 낮으나 도와주는 사람의 비율과 지원의 충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수장애는 비소수장애에 비해 신체활동에 제약이 덜하고 평균연령이 낮아서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일상생활에서의 지원 필요 정도는 소수장애 23.8%, 비소수장애 28.4%,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소수장애 83.2%, 비소수장애 76.0%로 나타남. 특히 도와주는 사람을 유형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장애는 배우자, 부모의 비율이 높고 비소수장애는 자녀의 비율이 높음
    - 지원필요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은 언어장애(40.3%), 뇌전증(32.1%)으로 나타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순으로 나타남
  - 지원의 부족은 소수장애 44.1%, 비소수장애 46.8%로 소수장애가 낮게 나타남. 유형별로 보면, 호흡기장애(53.6%), 언어장애(50.7%), 심장장애(47.1%), 뇌전증(46.7%) 등으로 나타남
- ▶ 소수장애는 비소수장애에 비해 차별은 받는다는 비율이 높고,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등의 순으로 차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장애인 인식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소수장애는 비소수장애에 비해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특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소수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차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됨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비소수장애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쁘지만 의료적  
접근성은 높음

〈표 2〉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일상생활 관련 특성

(단위: %)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비소수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소계	장애	
일상 생활 지원	필요없음	59.7	89.5	83.6	89.2	93.1	88.2	67.9	76.2	71.6	71.7
	필요함	40.3	10.5	16.4	10.8	6.9	11.8	32.1	23.8	28.4	28.3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도와 주는 사람	있음	89.8	78.8	72.2	100.0	61.3	70.0	91.8	83.2	76.0	76.2
	없음	10.2	21.2	27.8	-	38.7	30.0	8.2	16.8	24.0	23.8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원 충분 정도	충분	49.3	52.9	46.4	100.0	100.0	64.5	53.3	55.9	53.2	53.3
	부족	50.7	47.1	53.6	-	-	35.5	46.7	44.1	46.8	46.7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차별 정도	차별받음	49.2	11.9	6.5	16.1	44.9	21.6	43.6	29.9	26.2	26.4
	차별없음	50.8	88.1	93.5	83.9	55.1	78.4	56.4	70.1	73.8	73.6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소수장애인의 건강 관련 특성

▶ 주관적 건강상태는 비소수장애보다 더 나쁘지만 미충족의료 경험은 낮아 의료적 접근성은 비소수장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수장애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56.8%, 비소수장애 48.3%로 소수장애가 높으나 미충족 의료경험은 소수장애 13.2%, 비소수장애 18.8%로 소수장애가 낮음
- 건강상태 나쁨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호흡기장애 82.6%, 장루·요루장애 58.4%, 간장애 58.2%, 심장장애 53.7%, 뇌전증 5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충족의료경험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호흡기장애 25.9%, 뇌전증 20.8%, 언어장애 14.7%로 소수장애 평균보다 높음
- 미충족의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와 뇌전증은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가 각각 38.1%, 26.2%로 가장 높고 언어장애는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의 응답 빈도가 높음. 즉 호흡기장애의 경우, 특별교통신단의 부족도 있겠으나 호흡장애로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어장애의 경우는 의사소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주관적 건강과 미충족의료

(단위: %)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비소수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소계	장애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19.0	10.4	6.8	5.7	-	-	7.1	9.5	11.6	11.5
	보통	35.4	35.9	10.5	36.1	54.1	41.6	40.2	33.7	40.1	39.9
	나쁨	45.6	53.7	82.6	58.2	45.9	58.4	52.7	56.8	48.3	48.6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충족 의료 경험	유	14.7	4.8	25.9	4.0	8.6	5.2	20.8	13.2	18.8	18.6
	무	85.3	95.2	74.1	96.0	91.4	94.8	79.2	86.8	81.2	81.4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소수장애인은 누구인가?

만성질환이 많고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  
지원서비스 필요

- ▶ 소수장애의 만성질환 비율이 높고, 특히 호흡기장애, 뇌전증, 안면장애의 비율 높음
  - 만성질환은 “뇌전증,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체적으로 고혈압의 비율이 높으나 심장장애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전증은 우울증, 호흡기장애는 천식, 안면장애는 이상지질혈증, 간장애는 간경변증, 당뇨병, 장루·요루장애는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즉, 주로 장애의 발생 원인인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음

〈표 4〉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무

(단위: %)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소계	비소수 장애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만성 질환 유무	유	52.2	68.1	96.2	63.5	81.3	65.2	100.0	69.7	63.7	63.9
	무	47.8	31.9	3.8	36.5	18.7	34.8	-	30.3	36.3	36.1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 스트레스, 절망감, 죽고싶다는 생각 등이 높아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장루·요루장애가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는 소수장애 95.0%, 비소수장애 88.3%, 슬프거나 절망감은 소수장애 26.4%, 비소수장애 21.7%, 죽고싶다는 생각은 소수장애 18.5%, 비소수장애 12.4%로 모두 소수장애가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의 경우,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언어장애 등의 순으로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남
    - 슬프거나 절망감은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장루·요루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죽고싶다는 생각은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정신적 건강

(단위: %)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소계	비소수 장애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스트 레스	유	93.6	95.2	100.0	91.5	100.0	93.6	96.7	95.0	88.3	88.5
	무	6.4	4.8	-	8.5	-	6.4	3.3	5.0	11.7	11.5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절망 경험	유	19.4	16.2	49.3	18.6	40.6	21.2	32.2	26.4	21.7	21.8
	무	80.6	83.8	50.7	81.4	59.4	78.8	67.8	73.6	78.3	78.2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살 생각	유	8.7	6.3	33.5	10.9	27.0	25.0	24.3	18.5	12.4	12.6
	무	91.3	93.7	66.5	89.1	73.0	75.0	75.7	81.5	87.6	87.4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소수장애인은 누구인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보건의료건강서비스  
이용률 높음

- ▶ 소수장애는 비소수장애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소수장애보다 만성질환 및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소수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차별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6〉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비소수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소계	장애	
삶의 만족 도	만족	49.3	67.0	50.1	60.4	39.4	47.6	5.7	46.9	54.6	54.4
	불만족	50.7	33.0	49.9	39.6	60.6	52.4	94.3	53.1	45.4	45.6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 소수장애는 보건의료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비소수장애보다 높고 건강관련 정보획득처는 의료기관 및 TV 등 대중매체로 나타남
  - 보건의료건강서비스 이용률은 호흡기장애, 간장애, 뇌전증, 안면장애, 심장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일반진료,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구강보건 등을 이용함
  - 건강관련 정보획득처의 경우, 소수장애는 의료기관, 비소수장애는 TV 등 대중매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소수장애는 장애의 원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이 잦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7〉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보건의료건강서비스 이용 및 정보획득처

(단위: %)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비소수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소계	장애	
건강 서비스 이용	유	81.3	89.7	96.2	94.7	92.1	84.7	93.0	88.0	77.2	77.5
	무	18.7	10.3	3.8	5.3	7.9	15.3	7.0	12.0	22.8	22.5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건강 정보 획득처	보건소	5.8	-	3.1	6.5	-	3.9	2.3	4.2	4.0	4.0
	복지관/ 관련단체	4.1	-	-	-	-	-	2.4	1.6	4.7	4.6
	의료기관	31.7	37.7	34.1	47.0	63.6	43.6	46.6	39.0	29.0	29.3
	관공서	1.6	-	-	4.3	-	-	7.3	1.8	2.5	2.5
	대중매체	34.4	37.5	46.7	28.3	-	42.2	16.8	34.7	38.7	38.6
	인터넷	8.4	18.4	3.1	10.0	13.1	-	13.1	7.4	5.4	5.5
	주변사람	8.0	6.4	6.1	3.9	7.9	7.1	-	6.1	8.7	8.6
	정보를 얻을 수 없음	6.0	-	3.5	-	15.5	3.1	11.5	4.7	6.4	6.3
	기타	-	-	3.5	-	-	-	-	0.5	0.7	0.7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고 소득에 비해  
지출수준이 높음

### 소수장애인의 경제적 현황

- ▶ 소수장애는 비소수장애에 비해 생계급여 수급 비율과 월평균 가구지출이 높게 나타났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장애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큰 것으로 나타남
  - 생계급여의 경우, 뇌전증(48.4%)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흡기장애(30.6%), 언어장애(23.0%), 장루·요루장애(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은 호흡기장애(151.2만원)가 가장 적고 다음으로 장루·요루장애(163.8만원), 뇌전증(173.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지출은 심장장애(219.8만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언어장애(206.2만원), 간장애(195.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호흡기장애(99.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루·요루장애(95.4%), 심장장애(91.9%) 등의 순으로 단순 지출액으로 본 결과와 다소 상의한 결과를 보임

〈표 8〉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경제적 현황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소계(평균)	비소수 장애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생계급여 수급여부 (%)	수급	23.0	16.7	30.6	8.7	13.6	21.7	48.4	24.1	20.0	20.1
	비수급	77.0	83.3	69.4	91.3	86.4	78.3	51.6	75.9	80.0	79.9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243.0	239.2	151.2	234.6	203.1	163.8	173.8	203.9	203.7	203.7
월평균 가구지출 (만원)		206.2	219.8	149.9	195.2	174.8	156.2	155.4	181.2	173.7	174.0
지출비율(%)		84.9	91.9	99.1	83.2	86.1	95.4	89.4	88.9	85.3	85.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수장애가 194.3천 원으로 비소수장애 127.9천 원에 비해 66.4천 원 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질병에 의한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증화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소수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265.9천 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언어장애, 안면장애, 심장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의료비지출이 가장 높았으나 소수장애(117.1천 원)와 비소수장애(46.9천 원)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비소수장애에 비해 소수장애의 비용이 큰 항목은 보육/교육비, 보조기기구입비, 노후대비비 등임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소수장애인은 누구인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중 의료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특히 의료비의 경우, 간장애(225.6천 원)를 가장 많고 안면장애(195.2천 원), 심장장애(105.5천 원), 언어장애(102.3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9〉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 및 항목

(단위: 천 원)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비소수장애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평균		
소계	230.3	197.6	124.4	265.9	215.4	189	113.3	194.3	127.9	130.8
교통비	13.8	41.8	12.1	31.0	20.2	14.2	15.3	17.9	20.5	20.3
의료비	102.3	105.5	95.7	225.6	195.2	95.9	87.3	117.1	46.9	50.1
보육/교육비	45.5	2.8	-	2.0	-	-	-	14.5	9.4	9.7
간병비	14.3	32.8	6.1	3.3	-	5.8	-	9.2	20.7	20.2
재활비	1.9	-	-	-	-	-	6.1	1.2	0.6	0.6
통신비	29.6	-	-	-	-	-	2.0	9.3	12.5	12.3
보조기기 구입비	6.5	0.7	10.5	-	-	73.1	1.4	18.5	12.7	12.9
노후대비비	16.4	14.0	-	4.0	-	-	1.2	6.6	2.9	3.1
기타	-	-	-	-	-	-	-	-	1.7	1.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소수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 ▶ 소수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률이 비소수장애인에 비해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률이 높고 향후 장애인체육시설,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소수장애인	비소수장애인	전체
직업재활시설	0.2	1.1	1.1
장애인복지관	5.3	7.1	7.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	1.4	1.4
장애인체육시설	1.0	1.6	1.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2	0.3	0.4
장애인재활지원센터	0.8	0.8	0.8
장애인도서관	-	0.5	0.4
교통약자지원센터	3.8	6.6	6.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6	0.5	0.5
자립생활센터	-	0.4	0.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4	0.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0.2	0.2
장애인단체	-	1.1	1.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II. 소수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소수장애인은 누구인가?

비소수장애에 비해  
향후 장애인체육시설  
이용과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큼

〈표 11〉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향후 이용 희망 서비스

(단위: %)

구분	소수장애인	비소수장애인	전체
직업재활시설	2.2	5.3	5.2
장애인복지관	8.6	13.8	13.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1	6.7	6.7
장애인체육시설	11.7	10.5	10.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7.4	5.9	5.9
장애인재활지원센터	5.4	6.5	6.5
장애인도서관	2.9	2.7	2.7
교통약자지원센터	15.0	17.7	17.6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3.7	4.3	4.3
자립생활센터	5.2	5.3	5.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6.4	5.9	5.9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6.6	5.5	5.5
장애인단체	3.7	3.6	3.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 정책 요구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나,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도는 비소수장애에 비해 소수장애가 높게 나타남.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수장애는 질병에 의한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질환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비소수장애보다 높은 요구사항은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건강관리 등으로 나타났고, 소수장애 유형별로 의료보장 요구도는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등이 소수장애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12〉 소수장애인과 비소수장애인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구분	소수장애							소수장애 평균	비소수 장애	전체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소득보장	44.6	49.7	37.9	44.9	50.1	53.3	44.8	45.7	46.2	46.2
의료보장	32.20	15.2	38.6	26.9	42.0	28.0	18.5	29.5	26.3	26.4
고용보장	-	-	3.8	4.3	7.9	6.2	21.5	4.7	4.7	4.7
주거보장	5.3	4.8	16.7	2.2	-	4.4	5.9	6.4	11.0	10.8
이동권보장	-	-	-	-	-	3.2	-	0.6	0.8	0.8
보육교육	2.0	6.4	-	-	-	-	-	1.1	0.8	0.8
문화여가 체육활동	-	-	-	-	-	-	3.3	0.3	1.0	1.0
장애인인권	3.7	6.7	-	8.3	-	-	3.5	3.1	2.1	2.1
장애인 인식개선	6.6	5.8	-	13.4	-	-	-	4.3	2.7	2.8
장애인 건강관리	3.5	11.4	-	-	-	5.0	2.4	3.1	2.8	2.8
의사소통 정보접근	-	-	-	-	-	-	-	-	0.3	0.3
재난 안전관리	2.0	-	-	-	-	-	-	0.7	0.2	0.3
기타	-	-	-	-	-	-	-	-	0.1	0.1
없음	-	-	3.1	-	-	-	-	0.5	1.1	1.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장애유발 질병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전문상담 강화,  
소수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체육시설(프로그램)  
확대와 법적 근거  
필요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중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련 자원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장애유발 질병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신체수발 돌봄보다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및 전문상담 강화 필요

- ▶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더 취약한 장애유형으로 조사된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중심으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점차 확대함. 특히, 보건영역 외 지역복지관 등 복지영역에서는 간호인력 등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방문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로 높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를 지원할 수 있음
-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유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과 장애인 가족상담 등을 통해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이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 당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소수장애인들은 비소수장애인보다 스트레스, 절망감, '죽고싶다'는 생각의 정도가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는 낮음.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과 그로 인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전 소수장애) 법정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교육에 소수장애인을 주강사나 보조강사로 참여시키거나 교육 콘텐츠에 소수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소수장애인들은 비소수장애인들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이 높고, 대중적 인식 부족으로 주요 정책에서 제외되거나 복지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sup>7)</sup>

(전 소수장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강화

- ▶ 향후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비소수장애보다 높게 나타남.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활동은 재활 및 건강관리, 운동증진, 대인관계 향상 등 잠재능력 발휘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장류세척시설 등) 설치지원과 이용이 편리한 시간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할당과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

소수장애인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장류요루장애인 지원 조례」시행에 따라 인공장류·요루세척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기타 소수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미진함

7) 이병화, 이미영, 최유일(2020). 경기도 장애인복지 계획(2021~2023) 수립 연구